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탕평책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4년 4월 8일( 월요일) / 장 소 : CLC 4층 스터디룸							
<b>김참석자 명단</b>	학번	2021****	이름	권*재	학번	2023****	이름	우*정
	학번	2022****	이름	김*영	학번	2023****	이름	박*형
	학번	2022****	이름	이*소	학번	2023****	이름	김*정
	학번	2023****	이름	윤*우				
<b>참석인원</b>	7명							
<b>선정도서</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장 보통의 차별 - 전훈익</li> <li>2. 그랜드스탠딩 - 저스틴 토시, 브랜던 윅키</li> <li>3.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 김태형</li> <li>4. 시대에보 - 송길영</li> </ol>							
<b>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b>	<p>책: 가장 보통의 차별 - 전훈익</p>  <p style="font-size: small; text-align: center;">차별하는지도 모르고 차별당 수많은 순간들에 대하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상 및 비평</li> </ol> <p>권*재: 우리가 오늘까지 읽어 온 책은 “가장 보통의 차별”이라는 책인데 요. 내용 자체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에세이 형식이라서 좀 읽기 가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추천자 누구셨을까 요? 추천자 님의 한마디 축사를 듣고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추천을 하게 된 동기와 더불어 어떻게 읽으셨 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p> <p>김*영: 저는 아무래도 우리가 정한 주제인 혐오, 차별에 대해 외국보다는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례 중심을 좀 다뤄보면 좋 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이라서 최근의 관련 이슈들을 다룬 책이라서 조금 더 읽기 좀 쉽고 이해</p>							

하기 용이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우리 읽을 책 들 중에 가장 난이도 면에서 되게 쉽고 문장도 잘 읽히는 책 일것 같아서 잘 선정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 나오는 사례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기자가 얘기하는 그런 경험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정도가 심한 차별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까지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했다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이 책에서 다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권\*재: 좋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그 얘기에 약간 가정이 하나 들어가는 게 읽으면서 적극적으로 공감이 된 부분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윤\*우: 저는 사실 하영이가 말한 부분에 공감합니다. 사실 저는 남자라서 등장하는 차별의 사례들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긴 한데, 차별 관련된 사례들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 다루는 주제 자체도 다 차별에 관련된 주제라서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노숙자 관련 이야기입니다. 알바 사장님이 기자셨거든요. 그래서 노숙자 인터뷰했던 썰들을 들려주셨는데 그런 사장님의 경험을 듣고 이 책을 읽으니깐 약간 조금 더 이해가 잘 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소: 저는 '가장 보통의 차별'이 저희가 읽을 책 중 가장 우리 한국 사회와 잘 맞아 있고, 제가 이 북클럽에서 제일 다루고 싶었던 주제들이나 사례들을 언급을 해준 책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인종차별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고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옛날부터 너무 당연하게 인종차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 성차별이나 노인 차별 같은 문제들은 점점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외국인, 인종차별 관련 문제는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냐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이 그 부분을 짚어준 것이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권\*재: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인종 간의 갈등 문제는 조명이 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다는 거네요.

이\*소: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

점 밖으로 진출하게 되는 일도 많은데 그 상황에서 좀 더 민감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형: 저는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신간이어서 최신 정보들을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접했던 얘기들을 책으로서, 기자의 시선으로서, 또 여성 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요. 여성들이 받는 차별의 시선들이나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조건, 유리천장 같은 부분은 전에는 느끼지 못했다보니, 이런 사례도 있구나라고 느끼며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우\*정: 저는 제가 몰랐던 차별에 대해 알게 됐는데 저는 사실 전라남도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는 것과 같이 지역적인 갈등에 대해서 되게 무지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지역 차별, 갈등에 대해 새로움을 느꼈고 몰랐던 난민 문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례를 알 되어서 감명 깊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책에서 토론할 거리가 많다보니까 한 주제에 대해서 깊게 토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례 중심의 책이고 저자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책이라서 깊이가 없는 책이지 않나 싶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더 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서 나아가서 편견이 생기고 차별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고정관념으로 비롯된 차별과 편견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2. 인상깊은 갈등과 혐오의 주제

권\*재: 좋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읽어봤는지 이야기를 다 해보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게 생각했던 갈등과 혐오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 저는 '늦게 다니지 마'라는 2차 가해'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공감 많이 갔던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도 여성들은 '늦게 다니지 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이라서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에서도 늦게 다녀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든 범죄는 다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려주잖아요. 이런 통계적 사실을 봤을 때 늦게 다니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차별적인지, 또 이 말이 얼마나 피해자를 탓하는 말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이 성인지 감수성이 낮기 때문에 벌어지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의 인식에 대해 돌아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우: 저는 노숙자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봤는데요, 책에서 공감했던 부분은 한 노숙자가 자신은 원하는 것이 물품 조달이나 물질적인 지원 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노숙자에게 필요한 건 관심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처럼 노숙자 자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노숙자의 실상, 사회 전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박상형: “‘누칼협’이라는 시대정신”, “의원님, 그렇게 차별이 하고 싶으세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그냥 배척하고 협박하려고 하는 것은 배우거나 시도하는 입장에 있는 이들에게는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누칼협’ 같은 태도를 보였고 주변에서도 이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주변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권력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해 압도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약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박\*형: “‘누칼협’이라는 시대정신”, “의원님, 그렇게 차별이 하고 싶으세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그냥 배척하고 협박하려고 하는 것은 배우거나 시도하는 입장에 있는 이들에게는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누칼협’ 같은 태도를 보였고 주변에서도 이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주변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권력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해 압도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약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소: “‘전라디언’과 사투리”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안 어른들이 지역 색이 열어서서 그걸 아예 생각을 못하고 살았었거든요. 경기도에 살아오기도 했고요. 제가 야구를 KIA 타이거즈를 좋아하잖아요. 이 팀이 전라도에 광주에 연고를 둔 팀이고 제가 1학년 때 이제 학술제에 참여하면서 광주 5.18을 주제로 잡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는 그냥 흥미롭다는 주제 하나를 그냥 선택해서 그렇게 민감한 부분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 주제를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되게 싫어하던 학우도 있었고 되게 비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전라도 차별이 저는 약간 옛날 얘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걸 약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정: 저는 인종에 대해서 좀 흥미를 느껴서 “흑인 인어공주”가 필요해”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느꼈어요. 저는 PC주의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흥미가 있었던 게 일단 인어공주라는 영화가 어떤 매체잖아요. 근데 이런 PC주의가 매체에서 나타났을 때의 역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문제는 이런 유색 인종 자체가 대중한테 못 보이는 것, 이 영화를 만듦으로써 사람들이 흑인에 대해서 더 반감을 가질 수 있고, 영화라는 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매체에서는 이런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수자가 PC주의로 더 혐오를 받게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 3. 우리의 일상 속에서 쓰이는 혐오의 표현들

권\*재: 여성과 노숙인, 계층의 문제 그리고 지역 갈등 문제들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과 공격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많은 비하 표현과 혐오, 차별 표현을 쓰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며 반성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 너무 심각한 것들이 많아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도 혐오표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소: 틀딱이라는 말도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젊은 층들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차별적인 말이 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정: 틀딱 같은 말은 개인을 억압하고, 단어 하나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김하영: 최근에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노키즈존 같은 경우도 차별이 일상화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를 신경 쓰고 집이 아닌 밖에서 케어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부모가 아이를 신경을 쓰는 거와 별개로 사회에서 얼마나 아이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심지어 노인이 매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보이면서 우리 사회의 심각성이 이제 눈에 쉽게 나타나는 정도까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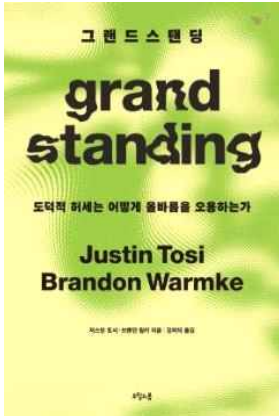
권\*재: 우리 주변에 그만큼 차별적인 표현들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의식하지 않는 차별 표현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차별적 표현을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일상화된 혐오와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종겠습니다.
--	--------

2024년 4월 8일

참가자대표 : 권\*재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탕평책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 장 소 : 한림대학교 음악감상실							
<b>참석자 명단</b>	학번	2021*****	이름	권*재	학번	2023*****	이름	우*정
	학번	2022*****	이름	김*영	학번	2023*****	이름	박*형
	학번	2022*****	이름	이*소	학번	2023*****	이름	김*정
	학번	2023*****	이름	윤*우				
<b>참석인원</b>	7명							
<b>선정도서</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장 보통의 차별 - 전훈익</li> <li>2. 그랜드스탠딩 - 저스틴 토시, 브랜던 워키</li> <li>3.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 김태형</li> <li>4. 시대예보 - 송길영</li> </ol>							
<b>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b>	<p>책: 그랜드 스탠딩</p>  <p>김*정 : 갈등의 양상 중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하게 되었는데, 토론의 거리도 있을 것 같고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책에서 나오는 그랜드 스탠딩의 5가지 특징이 저는 대부분의 갈등에서 보여지는 양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너무 그랜드 스탠딩에만 초점을 맞춰 도덕적인 게 주가 되었던 느낌도 있네요.</p> <p>이*소 : 저는 일단 그랜드 스탠딩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어를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읽다가 되게 SNS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정말 많이 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칭하는 용어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나조차도 그런 적이 많았던것 같고 주변에도 그 런 사람 브랜드 스탠딩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느꼈습니다.</p> <p>김*영 : 저도 취소랑 마찬가지로 저도 이런 브랜드 스탠더라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 저 또한 너무나 그런 사람이라고 읽으면서 느껴서 좀 불편했던, 나를 너무 너무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고</p>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개인적으로 반성도 했어요. 1, 2장은 읽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뒤쪽에 '치달기', '무시하기' 이런 내용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굳이 그랜드 스탠딩이 아니라도 뭔가 사회적으로 만연한 일들을 이 책에서 말하는 그랜드 스탠딩이랑연결한 것 같아요. 정치자체가 어쨌거나 허세와 도덕적 오류가 가득한 그런건데 그런 내용을 너무 여기서는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그게과연 개념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지 그냥 이 그랜드 스탠딩 자체도 어쨌면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는데 너무 학문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권\*재 : 그래서 여러모로 공감은 된 게 있지만 일부 비판점이 존재한다.그거는 이제 너무 윤리적이고 개념적인 이야기만 해서 그런 것 같다.오케이 좋습니다.

박\*형 :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책이 포퓰리스트들을 저격하는 기능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나는 이러니까 너희들은 잘못됐어. 너희들은 나를 팔로우 해야 돼." 하는 생각들. 그리고 술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중간에 어려웠던 내용도 있었지만 이제 살짝 니체 나오면 이제 살짝 머리가뜨거워지긴 했는데 그것만 빼면 꽤나 의미 있는 책이 아니었나.

권\*재 : 예. 힘에의 의지 파트가 나왔죠.

우\*정

: 저도

6장 넘어가면서 덕이 있는 사람 여기 니체 나오면서부터 좀힘들었는데 그리고 뭐랄까 소재도 되게 신기했고 신기하게 만나고 마지막에는 공적 담론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전에 극단주의가 책 읽을 때도 저희가 그런 극단주의 해결 방안을 얘기할 때 어 땡게든 어쨌든 저희가 뭔가 흐름 하나의 흐름을가지고 책을 읽는 거니까 앞에 거랑 또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극단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마지막에는 뭔가 혐오 해결 방안으로 대화를 어쨌든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책도 마지막에 어떤 현대 공론장에 대한문제점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랑도 엮어서 얘기를 해보면 좋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랜드 스탠딩이 주제긴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 8장의 변화를 위한 방법이나 아니면 도덕성이 관련되는 정치 어떤 담론 이런 공적 담론 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그 점도 뒤에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재: 그랜드 스탠딩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각자 좀



SNS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런 사례를 좀 겪어본 적이 있나요?

이\*소 : 겪었다기보단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걸 읽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랜드 스탠딩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약간 깨달은?

권\*재 :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김\*영 : 그냥 피드에 글을 쓰더라도 그게 걸만 번지르르를 하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오류가 있다거나 그래서 댓글로 반박을 하면은 그 댓글을 삭제하는 브랜드 스탠더들의 모습 이런 건 너무 많다고 느꼈어요. 유명세를 얻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피드를 올리는 걸 통해서 그 유명세를 유지하려고 할 텐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전문적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의견만 강요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정 : 그냥 제일 흔한 거는 그런 거 아닐까요?

연예인들이 봉사 같은 거를 과시적으로 하고 보여주기 용도로만 하는. 사실 여기 나오긴 하는데 저는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 동기랑 행동이 나오잖아요. 근데 행동이 올바르면 동기가 어떻든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여기서 그게 왜 잘못됐는지 나와가지고 관찰았던 것 같아요.

우\*정: 맞아.

사례로 그거 있잖아 자원봉사를 2명이 했어. 근데 한 명은 자기가 우려나서 하는 애고 한 명은 자기의 어떤 경력을 쌓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마음은 없는 거야. 동기가 없는 거야. 일단 감정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되게 분노에 차 있다 보니까 그런 원인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그랜드 스탠딩도 그런 공적 감동을 흐리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김\*정: 여기서 나온 것 중에 검은 양 문제인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사회 방향이 이쪽으로만 다 가고 있는데 그 영화가 말한 것처럼 누구 한 명이 옳은 얘기를 뽐 해도 약간 그게 배척되는 옳다는 걸 다들 알긴 해도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생각 일단 배척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윤\*우: 경쟁 사회인 게 제일 큰 문제. 저희가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자연자원도 없고 우리 약간 휴먼 캐피탈로 약간 돌아가는 느낌인데 끝까지 돌아간 느낌인데 저희가 이제 어려서부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부를 잘 하는 게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으면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대학도 웬만하면 가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맹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학을 가는 과정에서 아무나 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되게 어릴 때부터

경쟁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뭔가를 하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적대자 느낌으로 하기때문에 뭔가 약간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약간 온라인이 좀 발달돼 있는 나라이기도 해서 그런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곳도 많아요.

김\*영 : 담론을 제가 수업시간에 배웠는데 담론 자체가 민주적으로 평등한위치 동일선상에 서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게 담론이라고 들었고 그리고 그 담론에서 도출되는 의견이 사회에 잘 흡수가 되어야 민주적인 담론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최근 우리나라 그런 공론 공론장 그런 걸 공적 담론을 하는 위치를 보면은 그냥 우리같은 학생 이런 사람들이 대 표적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담론자만 보기 어려워진 것 같고 그런 위치 에서 나와서 담론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고학력자 교수들 그 분야 전문가들인 것 같아서 그런 담론장에 대한 역할에서 과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나설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그런 좀 걱정 그런 안 타까움 그런 게 있고.

김\*영 : 최근에 시험 범위에서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 변동 그 책을 읽으면서 최근에 그러니까 17, 18세기 영국 런던 커피하우스인가 하여튼 커피하우스에서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스마트폰 안에서의 공론장의 구조가 변동이 됐는데 그 온라인에서의 공론장이 과연 제대로 된 공론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면서 그 책이 끝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에서 하는 과연 담론이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온라인은 너무 조작이 되는 것도 많고 또 사람들이 쉽게 이끌 수 있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담론을 형성해 나갈 것인가 어느 위치에서 형성해 나갈 것인가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권\*재: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투표나 그런 데서 중위 투표자 정리라는 게 있어요.이제 가장 중앙에 있는 사람의 의견이 보통 어떤 정치적인 정책으로 채택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그런 내용의 요지인데 그런 만큼 사실 중위자 어떤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사실상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양 극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런 거에 대한의견을 알기가 힘들겠죠.그리고 또 너무 극단적인 예시 멕시코에다 장벽을 세운다든지 왜 그러니까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막 그런 걸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러면 좀 이상한 정책들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냉소주의 이제 시니시즘이죠. 이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좀 차가운 많이 차가우신 것 같아요. 무서워요.

윤\*우 : 전 양극화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아까 하영이가 얘기한거랑 조금 겹치는데 이 중앙에 있는 사람이 의견이 무시되는 것도 많은데이게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약간 소속하려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정 : 주장을 했다고 해도 존중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골라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 둘 다 뭔가 절충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윤\*우 : 제가 말하자면 전 책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한데 그건 근데 이거 해결책이 저희도 어찌 됐든 저희가 주제가 이제 혐오 갈등 이런 거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저희도 이제 해결책을 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해결책을 열심히 보는데 이런 학자들도 해결책이 되게 약간 뭔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오케이 대충 알겠어 그랬는데 이 온라인에서의 문제점은 저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 책에 따르면 그래서 그런 것들 해결책이 되게 뭔가 우리가 해결책을 만들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요?

권\*재 : 그러니까 해결책이라는 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기가 힘들고 명쾌하게 나오는 아이디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좋습니다.

박\*형 : 현우 형이 말했던 걸 살짝 보태자면은 이제 온라인에 이제 우리 사회나 이제 세계 사회의 관건은 오프라인 중심보다는 이제 온라인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온라인에 그런 문제들을 이제 그런 그랜드 스탠버드를 어떻게 우리는 맞 이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걸러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가진 특성 익명성이라든지 그냥 동글 싸주로 쳐도 아무 뭐라고 그 까 그런 풍토들 그냥 너무나마디 툭 던지기 쉬운. 어쨌든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근데 또 익명성을 보장을 안 하자니 또 그 것도 문제가 되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또 얘기할 수 있는 또 그런 공론의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엄청난 그런 과제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

박\*형: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 그러냐면은 어쨌든 너는 우리 편이고 저 사람은 다른 테니까 공격해라는 풍토가 너무 만연해져가지고 그게 세계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극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점점 심화됨에따라서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권\*재 : 이 사람들은 공론장에서 자신만의 이익과 어떤 그런 것들 허세를부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지만 그것들로 하여금 영향을 받는 사람들 때 그런 사람들 이제 양성이 되면서 혐오나 갈등이 좀 심화되는 것 같더라는 의견이 다른 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우\*정 : 뭔가 책에서도 옳은 명분을 위해서 해결책으로 옳은 명분을 위해서 옳은 일을 옳은 말을 하라 옳은 일을 하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브랜드 스탠딩을 좀 줄일 수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옳은 명분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고 그 명분이 개인마다 다른 거죠.어떤 어쨌든 옳은 명분이라는 거를 개인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심지어 그걸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혐오인 것 같아요.

권\*재 :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의도하고 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될 수 있어.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자기네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렇게 했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잘못된 의견들이나 너무 극단적인 의견들이 생산이 되고 그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게 맞나 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김\*영 : 저는 이 브랜드 스탠딩 자체가 남들과 나는 달라 는 남들과 다른생각을 가지고 있어.나는 너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면을 바라볼 줄 아는 통통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브랜드스탠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자체가 어쨌든 행동하는 혐오는 아니지만 생각하는 혐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좋은 행동을 하는 건 맞잖아요. 좋은 사실과 생각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이 그랜드 스탠더드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걸 하는과정에서 좀 남들과는 남들을배척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혐오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랜드 스탠딩 두 번째 조건이었나 그거에 충족하는 게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어쨌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데 일조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윤\*우: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무조건 안 좋다고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지금 당신이 모르는 52가지 법칙인가 거기에 약간 얘기가 나오는데 떠벌림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일단 미리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떠버리는 거예요.

나는 뭐 이거 할 거야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점수를 받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 떠벌린 상태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더 노력한다는 게 이제 w 효과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랜드 스탠딩의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냥 무조건 그랜드 스탠딩 나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랜드 스탠딩을 잘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사람마다 다르다 생 각합니다.

김\*정 : 저는 그랜드 스탠딩 이 이 모습 자체가 이미 혐오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막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올바른 건 중요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이기려고 계속 무시하고 날조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혐오를 이끌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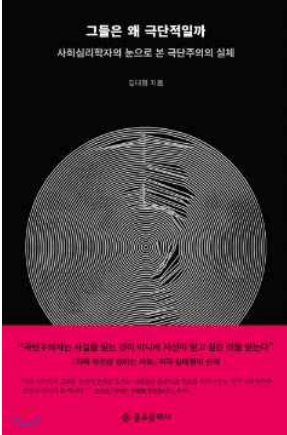
권\*재 : 원론적인 이야기긴 한데 이 책이 담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줬고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 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 사회의 혐오와 갈등 을 부추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	---

2024년 4월 15일

참가자대표 : 권\*재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탕평책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 장 소 : CLC 4층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권*재	학번	2023****	이름	우*정
	학번	2022****	이름	김*영	학번	2023****	이름	박*형
	학번	2022****	이름	이*소	학번	2023****	이름	김*정
	학번	2023****	이름	윤*우				
참석인원	7명							
선정도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장 보통의 차별 - 전훈익</li> <li>2. 그랜드스탠딩 - 저스틴 토시, 브랜던 워키</li> <li>3.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 김태형</li> <li>4. 시대예보 - 송길영</li> </ol>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책: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p>  <p>1. 책을 읽고 느낀 점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p> <p>이*소: 늘 제목에서 의문을 갖거든요. 그래서 왜 극단적일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읽는데 조금 다른 소리들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또 가뭄에 콩 나듯 중요한 얘기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긁어모아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또 내용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심리학자시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파고들어서 알려주시니까 좋았어요. 또, 내용들이 용어만 어렵지 내용들은 되게 쉬웠어서 이해하는 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니다. 근데 이분의 정치적 성향이나 말하시는 게 조금 강하셔서 읽는데 약간 불편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책이 그리 친절하지</p>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이 전체적으로 논문 느낌이 많이 나요. 말투만 좀 착하고 책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도 다 읽고 나면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오는 건 있었습니다.

윤\*우: 일단 시작 자체는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극단이 뭔지부터 설명을 하고 극단주의의 베타성이라 광신, 강요 이렇게 세 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베타성은 어떻게 광신은 어떻게 강요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시작한 건 좋았어요. 중간에 이제 선스타인 얘기가 나오면서 아예 그거를 비롯해서 아예 미국 심리학을 까는 쪽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중간부터는 이게 제목이라 무슨 관련이 있지 싶었고 그냥 미국 심리학을 까기 위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취소가 말했듯이 약간 쓰시는 방식도 사실 저는 마음에 안 든 게 뭘 이렇게 설명하다가 뒤에서 설명하겠다 이라고 뒤에 넘어가면 그게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해결책도 마지막에 끝부분에 해결책이 나오는데 그것도 충분히 책을 안 읽어도 저희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해결책이라서 개인적으로 살짝 마음에 안 들긴 했어요.

박\*형: 네. 일단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현우 형이 말했던 것처럼 극단에 대해서 그 베타성, 그리고 광신. 이런 워딩들을 쓰면서 세세하게 풀었다는 점, 다가가기 쉽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책의 문제점은 선스타인이 나오면서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이후부터가 미국의 무한 경쟁에 대한 엄청난 혐오와 뭔가 미국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한테 계속 그걸 주입하려는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라는 이 제목 안에 이 저자가 미국에 대해서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살짝 불편했습니다.

권\*재: 본인 스스로가 특정 국가에 대한 극단주의적 견해가 있어서 그런 시야로 바라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그렇게 베타성, 강요, 광신으로 나누는 게 어찌 보면 다 비슷해 보일 수 있는 말인데 그거를 사례를 들어주면서 나열해가지고 이게 좀 다르구나 이런 거를 좀 잘 느꼈던 것 같습니다.

김\*영: 이 책에서 귀결되는 그 결론은 혐오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주제에 맞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 책에서는 저자가 혐오에 관한 이야기를 뒤로 갈수록 딱히 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기저에는 혐오라는 게 개인의 그런 두려움 이런 게 다 깔려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앞에서 말이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런 미국 심리학 관련된 내용을 이 저자가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또 뭐 감정의 폭포화, 뭐 이런 집단의 극단

화 뭐 이런 되게 그런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 이제 그거를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너무 단편적으로 여러 개를 한 번에 쏟아내다 보니까 이제 그걸 조금 이해하면서 읽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다 미국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국이 갖는 자본 권력의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저자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극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려면 미국의 예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가 전혀 쓸모없진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필요한 이야기긴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쓰는 뭐 그냥 인터넷에서 쓰는 칼럼 뭐 이런 개인의 감상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 아까 현우가 말한 것처럼 이 책이 살짝 논문 형식을 띠는다고 다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좀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결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재: 저는 첫 부분에서 당연히 어떤 혐오라고 하는 것과 같등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그거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 것까지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이분의 사고 방식을 이제 우리가 저자와 대화를 한다는 것도 독서의 목적이기도 하니까 보편은 대부분의 어떤 분석 방법 중에 하나가 같등론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지배자와 피지배자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같등이 일어나고 혐오가 일어난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그걸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사회가 다원화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집단으로만 모든 걸 엮어서 설명하기에는 이제는 좀 사회가 너무 분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꾸준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지배자와 피지배 계급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었어요. 다만 저는 혐오와 같등에 대해서 그렇게 답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읽음으로써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발산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생활과 윤리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철학자가 나오고 그에 따른 어떤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현대 덕 윤리라든지 이런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게요. 하버마스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현대적인 어떤 해결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뒤에서 배워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본 각자 이렇게 임무를 부여한다면 다음에 PPT를 만들든지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아니면 미셸 푸코도 있고 우린 배웠으니까 대충 알긴 하는데 아무튼 저는 개



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정립이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 2. 국가 단위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와 일부 폭력 행위도 테러리즘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권오\*재: 나는 이 저자의 말을 100% 동의할 수는 없어요. 국가 단위에서 시행하는 폭력의 수단은 외국과 하는 건 전쟁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있고요.

내부에서는 탄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민중에 대한 탄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국가 단위에서 일어나는 테러도 그러니까 그 폭력 행위도 테러인가 이것부터가 조금 저는 애매하거든요.

박\*형: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좋은 예시가 하나 있는 것 같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군사 작전이었어.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 근데 이거 정도는 테러로 봐야 되는 건지 그 이후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때 이제 이제 우크라이나 그 땅이 진창이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건 테러라고 봐. 그거 그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들어온 건 테러라고 보는데 이제 양쪽이 이렇게 치고 받으면 이건 테러가 아닌 것 같아.

권\*재: 전쟁이 일어나는 제1 원칙은 자국의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인 목적은 항상 갖고 오는 명분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이스라엘의 여기 얘기가 나왔지만 2천 년 전에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고 하는 거는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 그 옛날의 역사적인 사실을 갖고 와서라도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지 않죠. 애네들이 분명한 이권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덤벼들죠. 미국이 자행한 중동으로부터 자행한 그런 행위들을 테러라고 규정을 하는데 미국은 당시에 정말 눈에 보이는 명분이 있어요. 석유 개는 페트를 달러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길 들어갔다고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걸 그럼 아무런 목적도 없고 자신들의 이념적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진짜 개개인에서 단위에서 일어나는 테러와 다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사실 이 지점부터가 조금 의문스럽더라고요. 어떤 국가적인 그다음에 지구적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테러라고 국가 단위에서 하는 북한에서도 가끔 납치하고 일본인들 납치해가지고 그런 것도 테러라고 볼 수는 있겠죠.

박\*형: 후반기에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초반기에는 테러라고 생각을 해.

권\*재: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북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서 정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 니다. 그러면 동의하시나요? 국가 단위에서도 테러라는 것이 가능하다. 행 동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

김\*영: 규정은 할 수 있지만 그 테러가 일어나는 국가 사이에 우리가 모 르는 1트랙 사이에서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그거니까. 그 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뭐 이렇게끼리는 아니더라도 그 밑에 세력들끼리 긴밀하게 오고 가는 게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쨌든 피해 보는 건 무고한 국민이니까 그건 테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소: 저도 그렇게만 보면 테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저 자가 말한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배타성, 광신, 강요 세 개가 모두 이루어지는 거는 그냥 정말 명분을 내세운다고 했잖아요. 그 결로 보지 않는 이상은 약간 테러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권\*재: 저도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이제 제국주의 시대. 우리한테 안 웃기죠. 그다음에 세계 1,2차 대전 이때 이제 좀 어떤 자기들의 서구사 회의 이념과 사상을 이렇게 막 주입하고 분열을 시키면서 그 악의 씨앗이 조금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저는 사실 받아들일 만하다는 생각 이 듭니다. 특히 지금 아프리카 사회 아프리카 그 대륙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민족 갈등과 수많은 지금 가난과 그런 악의 뿌리들이 저는 제국주의 시대에 시작된 만악의 근원은 영국에 있다라는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기는 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제국주의적인 그 당시의 어떤 폭력과 악재가 지금 까지도 이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일부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은 어떠신가요?

박\*형: 사실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아프리카도 물론 기반시설을 많이 투 자 안 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디아민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 문에. 어쨌든 정치 쪽부터 정돈이 되지 않아서, 청렴하지 못해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개발부터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 3. 종교의 배타성에 관한 생각을 나누어보자.

권\*재: 여기서 이제 종교의 어떤 배타성을 두고 가장 큰 예시로 나오는 게 기독교입니다. 사실 저는 읽는 내내 조금 불편했어요. 제가 종교가 가톨릭이기도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하.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조금 받아들일 만했나요?

김\*영: 이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너무 극과 극으로만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뭔가 정교를 나쁜 예시로 사용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권\*재: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예시가 10계명 등의 기독교 교리는 자구 그대로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합리적인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10계명 등의 신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다른 종교 혹은 무종교인에 대한 배타성은 필연적이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거를 진짜 요즘 시대에서 이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그냥 우리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데리고 가야 되고 이 사람의 의견도 존중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실제로 이걸 제 예시인데 성당에 어떤 아주머니분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제 진화론이라는 게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쯤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식이잖아. 근데 이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나는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창조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2020년이었거든요. 이런 건 광신이 맞아요. 근데 그 광신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과연 이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소: 절대 다수가 아니라 해도 그런 한 명의 영향력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재: 그렇죠. 충분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이\*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또는 오프라인으로 만약에 모일 수 있다면 너무 큰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죠.

권\*재: 그리고 이분은 이제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이기적 유전자를 쓰신 어떤 저자의 말을 되게 유명한 생물학자인데 이분의 말을 빌리면서 이제 종교에 대한 광신과 종교의 어떤 배타성을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

월한 미덕이라고 배우는 대신 그 신앙에 대해 의문을 갖고 깊이 생각해 보도록 배운다면 자살 폭탄 공격자들이 없을 것이라는 데 내기를 걸겠다 이 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어떤 광신의 이제 모체가 된다 편 더멘탈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정: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여기서 집단 극단화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앞에 어떤 단어를 정의한 거를 뒤에 예시랑 뭔가 연결을 하려고 그런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그 기독교 예시가 나온 이유가 집단 극단화를 설명을 하면서 그게 이제 사람은 서로 생각이 같은 집단 속에 들어가면 극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또 세분화해서 나눈 게 신념의 극단화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비슷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모여서 이제 토의를 하면 기존의 신념이 극단화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지적 수준이나 능력 학력 등과는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를 끌고 와서 이제 예시를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전 기독교 자체를 어쨌든 광신이라고 뭔가 가정을 하고 뭔가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어요.

권\*재: 그러니까 그거를 광신이다라고 가정을 해놓고서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논쟁 없이 이러한 종교적 예시를 들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우\*정: 네. 그리고 애초에 그걸 가져온 이유가 이제 기준에 뭔가 이제 집단 토론 후에는 더 강해진다 아니면 이제 신념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모여서 극단화된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걸 갖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김\*영: 같은 걸 믿는다는 그런 집단 의식. 이게 굉장히 많이 발휘하는 것 중 하나가 종교니까요. 그리고 그중 개신교요. 그 와중에도 불교는 사람이 응집되지도 않으니깐요.

이\*소: 개신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거로서 이미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 얘기까지 하고 싶어서 얘기를 좀 시작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큰 사건이었고 너무 진짜 학살과 테러라는 극단주의 모든 걸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개신교의 유대교 차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 홀로코스트 얘기까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재: 아주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 다신교와 유일신 그거는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인데 좀 새롭고 신기하긴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 4. 결론 부분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자.

권\*재: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 도둑 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의 결론이 주 4일제를 해야 된다. 아니 집중력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우리 사회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왜 우리가 주 4일제를 시행해야 되느냐 근데 그거에 대한 논의가 계속 점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제 주 5일 주 6일 일을 하는 것이 인체나 우리의 정신 신경학적으로 너무나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휴식이 보장되어야 되고 워라밸이라는 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설득이 되더라고요. 나는 주 4일제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 5일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학교도 그렇게 다녀왔으니까. 근데 이제는 주 4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가요? 이 결론 부분이 지금까지 잘 이렇게 쌓아 올려져 와서 이 결론 부분이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기에 괜찮았나요?

윤\*우: 하고 싶은 말이 저는 이걸 딱 1번에 안전한 사회에 나오면서 안전한 사회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위협과 정신적인 위협을 나눠서 맞습니다. 이런 위협들이 있어서 이런 위협들을 해결하고 안전한 사회가 돼야 극단주의가 없어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에 미국을 엄청 짚잖아요. 저는 사실상 미국이 그나마 나라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위협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실질적인 위협은 가장 없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미국은 실컷 까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극단주의라고 실컷 까면서 극단주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안전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책이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박\*형: 그냥 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그냥 너무 유토피아적인 관점이고.

권\*재: 초현실주의적이다.

박\*형: 애초에 미국은 이렇게 주별로 각자의 그런 지역 정보들이 너무나도 잘 돼 있고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연방 정부로 이렇게 하나를 컨트롤되는 나라고 우리는 그냥 연방 정부 그냥 하나로 그냥 짝 이렇게 내려가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걸 또 같이 비교를 해. 말이 안 맞지 그것도.

권\*재: 여기에서 실질적인 위협의 가장 큰 예시로 나온 게 생존 불안인데 그 생존 불안이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명의 위협보다는 이제 의식주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위협을 이야기를 하고 뒤에 이제 돈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여기에 이거 나오거든요. 이런 점에서 사회안전망의 확립 이걸 당연하죠. 이걸 해야죠. 무조건 기본소득제 도입을 시급히 고려해야 된다. 이게 사회안전망의 확립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까지 좋아 당연히 해야죠. 치안도 유지해야 되고 그에 맞는 복지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압니다. 근데 왜 갑자기 기본 소득제가 튀어나오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햄버거를 만들 때 다 중요한데요. 그다음에 갑자기 들깨가루도 넣어야 된다고 하는거랑 비슷하죠. 그건 자기 생각이구요. 번도 넣어야 되고 빵도 다 넣어야죠. 근데 그 이후로 덩어리도 넣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분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등한 어떤 주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이 문장이 나왔어요. 이미 인류는 최소한의 노동 혹은 일정한 시간의 노동으로도 전체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력 혹은 과학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도둑 맞은 집중을 거기서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 5일을 할 만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제는 노동이 분업화되고 그다음에 노동이라고 하는 걸 기계 고도화된 기계로 대체를 하면서 이제 진짜 충분히 주 4일제를 할 만한 사회적인 역량이 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나요?

이\*소: 앞에서 언급을 했으면 몰라도 앞에 전혀 그런 얘기 없다가 갑자기 결론에 와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당황했어요.

권\*재: 더 나아가서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과학 기술이 개발이 되면 그걸로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우린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과학 기술을 연구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경제학적인 시선이지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라는 걸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얘기를 하나면 그것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 만큼 우리는 딱 거기까지밖에 성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생산성과 과학 기술의 개발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구적으로 사실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 경제 성장만을 위해서라면 근데 다른 요소들이 많죠. 정치행정과는 어때요? 이제 진짜 성장할 만큼 성장했고 이제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정: 관제는 모르겠고 전 아까도 얘기했는데 앞에 얘기한 거랑 뒤에 도 대체 뭐 관련이 있지 계속 어떻게든 연관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굳이 따지면 극단주의의 원인을 설명할 때 안전에 대한 위협 안에 실질적인 위협을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정치적 경제적 권력 또는 신체적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던 이걸 설명하면서 마르크스 씨를 가져와요. 마르크스 씨를 가져와요. 근데 마르크스가 축적 혹은 이윤 축 충동에 사로잡힌 자본가 계급의 극단주의 그러니까 광신과 자본주의 체도가 만들어내는 강박 심리다. 라고 이제 극단주의를 표현을 하는데 또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뒤에서 해결책이 이렇게 뭔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설명을 뭔가 보충하기 위해서 이거를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재: 자본가의 과욕으로 인한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보강하기 위한 문장이다?

우\*정: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해결책을 어쨌든 뒤에 제시는 해야 되니까 아까 기본소득 제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 굳이 연결을 해서 갖고 오자면 어쨌든 이 사람이 쓴 거니까. 이 원인이든 이걸 해결하는 해결책이든.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재: 그리고 여기 그거 나오거든요. 자원을 파괴하고 생산물을 과잉 생산하는 그 이유를 두고 자본가 계급의 무제한적이고 강박적인 이윤 추구 욕망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저는 전제가 조금 잘못된 게 인간의 이기심은 모든 인간이 무제한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로 인간의 이기심과 어떤 욕심은 경제학적으로 무한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꼭 비단 지금 자본가들만의 욕심의 문제냐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조금 말이 어폐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다 그냥 소시민이고 환경 파괴도 안 하고 욕심도 덜하니까 그냥 막 쓰면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금 다 같이 당면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우리가 저지르는 환경 파괴와 과잉 소비 이것도 문제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지금 이 문장 얘기한 걸로 지금 나온 책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어떤 환경경제학 관련한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관점도 있겠지만 다른 관점도 있을 거고 이거를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를 한게 결국에는 자본가 계급이라고 일축하기에는 현대 사회를 진단하기에는

너무 이제는 안 맞는 옷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김\*영: 근데 어쨌든 여기서 결론을 현실적인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들뜬 소리 한다라고 내렸을 게 분명하고 전공 내 전공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전공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하면 교수님들이 늘 말하길 이런 사람들의 의견은 그닥 이제 우리한테 모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해요. 정당도 봐봐. 우리가 그 소수라고 하면 소수라고 할 수 있는 그 극단주의자들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들끼리 정당을 또 만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 모든 걸 다 아우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혐오가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알팍한 지식에서는 이게 끝이예요.

권\*재: 뭘 얘기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도 현대사회가 1%가 불을 독점하고 있고 그들의 과잉 생산과 욕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도 극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막아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시작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이 자본주의 제도로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윤\*우: 저는 애가 자본가 계급을 되게 까면서 그러면서 개혁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이 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본가가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다 욕심은 많은데 그게 이제 자본가는 이제 자기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네가 아니꼬운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거를 가졌네 이러면서 약간 마녀사냥처럼 자본가 계급이 자본가 계급을 나쁘다고 해놓고 그래서 이제 자본가 계급이 나쁘니까 사회 제도를 계약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애초에 자본가 계급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근데 자본가 계급이 욕심이 많고 개네만 이기심 때문에 자본가 계급이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자본가 계급이 아닌 사람들도 충분히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이런데 그 욕심과 욕망을 자신들은 못 채우는데 자본가 계급은 채우고 있으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화살을 그쪽으로 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5. 빈부 격차, 기업과 노동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김\*영: 1차적으로 임금 상승을 하고 그러면은 노동자도 그리고 사측에서도 그러고 뭔가 서로 1차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다음에 뭔가 그들이 원하는 걸 논의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쉽게 서로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지 않을까해요.

권\*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임금과 관련된 문제네요. 중요한 문제죠. 임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임금은 가장 예민한 주제고 결국 일을 하는 목적은 임금을 얻기 위함이죠.

박\*형: 저는 그 임금 제도에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법정 제도 그냥 인플레이션은 적법적 인플레이션은 이 정도로 보장을 해가지고 기업에서는 챙겨줘야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를 낳으면 1억을 준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재단을 이렇게 만드는거지. 큰 대기업 같은 경우 재단을 운영을 해가지고 좀 아이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약간 챙겨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 그게 진정한 부의 재분배 아닐까싶어. 어쨌든 인적 자본 투자니까.

권\*재: 실제로 그런 인덱스 계약이 되어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어떤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닌 데도 많죠. 임금 협상 계속하는. 근데 그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몇 퍼센트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계약도 다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업과 관련한 그 다음에 어떤 빈부 격차에 의한 갈등은 사실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넘어가고 여기 결론부를 하고 조금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눕시다. 이 문장이 있어요.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국가적인 차원의 공유된 목표는 차별과 학대가 사라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서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유된 목표를 갖고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이야기가 되더라고 같이 이제 막 이 공유된 목표를 이제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 그런 거죠. 결국 민중이 참여하는 어떤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국가보안법 얘기인데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박\*형: 우리가 어떻게든 얘기를 하나로 모으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해. 그러니까 다원화된 거는 좋은데 이 다원화된 사회를 우리가 정치 시스템에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아직도 이분법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아.

윤\*우: 저는 그 의견 모으는 것까지 인정하는데 일단 의견 모으는 것부터

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안 들어요. 자기랑 의견이 다르고 이제 그분들의 세대랑 저희 세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찌 됐든 50대 60대 분들은 어찌 됐든 경제개발 5개년 하면서 한국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 시대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그게 맞는 줄 알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자기가 이제 겪어봤는데 내가 해왔던 방식이 맞더라. 약간 그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려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듣는 게 우선이지 않나 어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각자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게 이제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 진짜 듣는 게 진짜 중요한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여기서도 막 그렇게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려면 자기가 일단 부족하다는 거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편하니까 완벽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 있을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우\*정: 안 듣는 것도 문제인데 들어도 문제인 게 책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뭐냐면요. 현대인들이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취급을 하는 어떤 신문이나 잡지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취향이나 기호에 맞는 기사만을 선택해서 읽는데 편향적으로 또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듣는 자세도 없는데 듣더라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또 아까도 얘기 했지만 또 자기 주장만 하고 어떤 그런 배타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해결을 하려면 이 경향이 있다는 걸 먼저 일단 인정을 해야 되고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듣더라도 편향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정: 맞아 맞아 편향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책 아예 안 읽은 사람보다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

윤\*우: 미디어 리터러시가 없는 게 문제인가요? 알고리즘도 문제인데 미디어 리터러시조차 안 되니까 이게 그냥 내가 봐왔던 게 맞는구나. 계속 이제 그쪽으로 이제 생각이 가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권\*재: 저는 줄곧 이분이 이야기했던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문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항상 얘기를 해왔어요. 우리 사회는 이제 단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이데올로기로 사람을 모으기는 이제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다당제 민주주의가 됐으면 좋겠

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모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다 달라요.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덮고서 딱 봤던 게 아실 수도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연금 개혁을 두고서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수에 대한 추정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단순하게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이해 당사자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걸 가지고 의견이 얼마나 많냐고 그럼 이거를 차분하게 책임감 있게 듣고 듣고 또 듣고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공론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 그렇기 위해서는 또 성숙해진 어떤 민주주의가 필요하겠죠. 이제 다원화된 사회를 막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위해서 그 의견들을 합치하고 그다음에 그 의견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버마스의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각자 혐오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드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각자 생각하는 인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문장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겠죠. 이제 과제를 드립니다. 이념이 있든 철학이 있든 철학자가 됐든 모든 의견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좀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철학자가 됐든 하나의 어떤 우리 사회에서 거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됐든 뭐든 좋습니다. 갖고 와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아마 그 사람들이 제공을 해주겠죠. 그것들을 한번 갖고 와서 나눠봅시다.

--	--

2024년 4월 22일

참가자대표 : 권\*재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탕평책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 장 소 : 한림대학교 음악감상실							
<b>참석자 명단</b>	학번	2021****	이름	권*재	학번	2023****	이름	우*정
	학번	2022****	이름	김*영	학번	2023****	이름	박*형
	학번	2022****	이름	이*소	학번	2023****	이름	김*정
	학번	2023****	이름	윤*우				
<b>참석인원</b>	7명							
<b>선정도서</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장 보통의 차별 - 전혼익</li> <li>2. 그랜드스탠딩 - 저스틴 토시, 브랜던 워키</li> <li>3.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 김태형</li> <li>4. 시대예보 - 송길영</li> </ol>							
<b>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b>	<p>책: 시대예보 - 송길영</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b>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b></p> <p style="font-size: small; text-align: center;">시대의 흐름을 보는 송길영의 공황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때 송길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얘기해보자.</li> </ol> <p>권*재 :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AI에 중점적으로 이야기의 흐름이 전개되어서 그 부분이 조금 놀라웠던 거 같고, 한 가지 다른 책들과의 차이점을 찾아보자면 저자가 존댓말을 쓴다는 점이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자와 대화를 하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p> <p>박*형 : 핵 개인의 시대가 부제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개인과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올까 싶었는데 거의 책의 반이 AI와 관련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접하고 있는 분야와 약간 비슷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앞에서 언</p>							

급을 해 주셨다시피 이제 존댓말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투이다 보니 좀 더 쉽게 읽혔던 것 같습니다.

윤\*우 :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안 겹치게 얘기해보자면 이제 중간 중간에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결혼 없이 아이를 낳으면 뭐 어떠냐 라든지 K컬처나 K팝에 나오는 K라고 하는 게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부분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을 깨워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소 : 저도 현우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며 책을 읽었는데 되게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건드려줘서 약간 생각을 이렇게도 해볼 수 있구나 하는 다른 방향을 제시해 준 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와 되게 밀접한 사건들도 언급을 해주면서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예시들을 들어 주니까 쉽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는 제일 적절한 난이도의 책이었고 맞는 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 : 저는 개인을 강조하는 사회가 아니었는데 개인을 강조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명확 나왔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따지고 보면 다 그 이후의 사례들도 많았던 것 같고 그러한 생각을 이 저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 아까도 AI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개인의 시대가 더 커져갈 것 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김\*정 : 이 책의 부제목이 핵개인의 시대라서 AI가 나온 이유가 점점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해서 핵개인이라고 표현한 것 같았고, 중간중간에 노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비난하는 등 어딘가 잘못됐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지 않았던 것들을 말로 해줘서 공감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우\*정 : 저도 마찬가지로 핵개인이라서 개인주의의 시점에서 사회의 문제점을 짚으려나 생각했는데 뒤쪽에서는 결국에 네트워크랑 연결지어 협업이 중요하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핵개인의 시대지만, 그 사람들끼리 협업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신기했고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은 가족에 대한 얘기인데요. “돌봄의 끝은 자립이다”는 부분을 되게 인상 깊게 읽었는데 AI 말고도 가족에 대해서 새로 가족을 대하는 태도나 존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서 되게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산 활동에서 참여할 필요가 없고, 개개인**

스스로 역량을 발휘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어떤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되는 사회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형 :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해당 얘기를 긍정하는 편입니다. 개발 직군같은 경우엔 git hub가 여러 번 언급되듯이, git hub를 통해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보고 서로 협업을 하는 시스템도 발달되어 있고, 그거를 통해 헤드 헌터들이 스카웃을 해가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권\*재 : 저는 오히려 핵개인의 시대일수록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정보를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나이의 차별로 인해서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들을 위한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떤 선형과 봉사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떤 생산성을 이끌어 올리는 하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개인주의와 그다음에 개인의 역량이 극대화되는 시기에 AI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협업과 어떤 사회적인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우 : 저도 공감합니다. 키오스크 등 시스템이 자동화됨에 따라 우리의 삶이 편리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뉴스 기사에 나오듯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때문에 겪는 불편과 새로운 기계에 대한 막막함 등을 보며 비교적 익숙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들과의 협업 또는 연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다음으로는 해야 할 이야기는 ”효도의 종말 나이 듦의 미래“라고 하는 챕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노인 세대와 그 다음에 자녀 세대인 우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싶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면 부모님을 모셔서 살 건가요?**

이\*소 : 저의 경우라면 완전 부양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님과 나의 바운더리가 가깝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살고 싶습니다.

권\*재 : 저는 독립하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든 자식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식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저도 부모님의 눈치를

많이 보니까 안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가끔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정 : 저희가 크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도와 주셨잖아요. 그치만 부모님께 모든 걸 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나온 예시에서는 노후 준비를 안해둔 상태이고 정년 퇴임을 한다면 자식들이 날 돌봐야 한다는 극단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김\*영 :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너무 서로의 눈치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제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을 다 모신다고 생각했을 때 한 공간에 계속 같이 있다보면 조금은 그렇죠. 서로 힘들고, 눈치도 보고 이렇게 싫어서 적당한 거리에서 각자 살면서 서로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을 정도로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 4.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박\*형 : 저처럼 형제가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혼자인 사람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외동도 또 많거든요. 외동의 경우 이제 두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소 : 과거에 비해 현재 가정과 지금 가족의 형태가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얘기하는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우 : 저도 동의합니다. 부모님에게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느냐는 자식 수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냐에 따라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의 재산이 여유가 있는 경우 오히려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소 : 저의 집의 경우 아버지께서 가끔씩 우리가 늙으면 너희 둘이 살아야 되는데 둘이 사이 좋게 잘 지내라라고 장난식으로 항상 말씀하시곤 해요.

#### 5. 이제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분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쳤던 어떤 그런 가족의 문화와 더불어 사회적인 문화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가정의 형태와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에 대한 생각과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해봐요.



박\*형 : 계층 간 성공 방식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는 사실 공부를 어느정도 해서 대학에만 들어간다면 직장 생활이 보장되어있던 시기였는데, IMF를 거처가면서 성공의 방식이 사실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공부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세대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우 : 책의 중간쯤에 되게 공감이 된 게 “부모님은 간접적인 화법으로 불편함을 표현한다. 죄책감을 덜고 싶은 자식과 그 죄책감에 기대서라도 자식과 끈끈하게 이어지고 싶은 부모의 모습”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랑 해도 서로 완전한 소통이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남한테는 오죽할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층 간의 갈등은 더 심할 수밖에 없지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정 : 저는 갈등을 겪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가 맨날 저한테 하시는 말이 우리 때랑 너네 때랑 다르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다고 항상 얘기 하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진로를 선택하거나 뭐 할 때 그러셨어요?

권\*재 : 어릴 때를 회상해보면 초등학교 때 꿈이 기재부에 들어가는 게 꿈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 꿈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버지의 꿈인 거지 제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제 초등학교 때 꿈은 우주 비행사였어요.

이\*소 : 저희 집은 고모들이 대학을 가는 대신에 우리 아버지가 가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아버지께서 고모들한테 엄청 미안해 하셔서 나만큼 그러지 않겠다 하고 저한테는 진짜 엄청난 자유권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할머니랑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는 고모들한테 한 것처럼 판검사나 의사 이런 걸 많이 해야지 좋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알려주셔서 부모님의 영향보다는 할머니의 영향으로 저 혼자 스스로 되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사 자 직업 해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 6.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생각의 차이와 소통의 부재가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김\*정 : 각자 살아온 생활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는 맞는 말인데 부모님 세대와 저희 세대는 아예 환경이 다르잖아요. 달라진 시대 환경을 안 받아

들이려고 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알바할 때 어떤 분들은 키오스크에서 주문해 달라고 하면 내가 저런 거 어떻게 하냐고 하시기도 하고, 저희 아빠도 옛날 노래만 듣고 요즘 노래 들으라고 하면 아예 안 듣고 약간 다른 세대의 그런 문화 같은 거를 아예 내가 이걸 왜 받아들여야 하는거야라고 하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똑같이 윗 세대분들의 얘기를 안들으려고 하는 것도 있구요.

박\*형 :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적으로도 부추기는 것 같고요. 이제 2030을 뉴스에서 시도 없이 떠들고 이제 4050에 대한 세대 갈등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을 보면 노인네들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또 유튜브 알고리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던 정보들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의 굴레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알고 있던 상식이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화가 안 되고 따로 노는 거죠.

윤\*우 : 저희 카톡에 올린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나면 아저씨가 들어오셔서 커피를 시킵니다. 커피를 시키는데 주문이 잘 안되는지 알바생분께 막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바생이 되게 강경하지만 부드럽게 대응하셔서 나중에는 잘 풀리셔서 아까는 미안했다고 사과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동영상 보고 정말 쌓인게 많다는 것을 느꼈고, 이걸 책과 연관시켜보자면 책의 중간 부분에 보면 5분 존경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참 괜찮다고 느낀 게 저희가 이제 책 세 개 하면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던 내용이 공론회의 장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공론회장장을 만들고 5분 존경의 시간까지 추가 해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예를 들어서 정치 토론을 해도 우파는 좌파를 존중하고 좌파는 우파를 존중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서로에 대해 조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7. 여러분들은 책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파트가 어디인가요?

윤\*우 : 제가 5분 존경 사회에 대한 부분을 가장 인상 깊었던 파트로 뽑은 이유는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라는 책을 읽으면서 뭔가 사람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동시에 사람들끼리 모이더라도 서로 비난하고 이래서 건설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던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5분 존경 사회는 이제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론의 장이 만들어졌을 때 5분 존경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남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박\*형 : “ 천륜은 사라져도 연대는 남는다. “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발상의 전환인 부분이 천륜을 약간 사라져도 부모님들과 우리가 연대를 이렇게 같이 한다면 또 다른 솔루션이 여러 개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랑 같이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게 딸이 사장이고 이제 아빠가 여기 회사의 직원이고 이런 류의 방식도 하나의 솔루션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되려면 우리 사회가 이 변화의 바람을 잘 받아들이기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이런 생각을 또 해봐야겠죠?

이\*소 : 제가 책에서 나온 이슬아 작가의 가녀장의 시대 책을 한 번 읽었는데 읽으면서도 약간 처음에는 되게 엄청난 페미니즘 소설 또는 되게 풍자만 가득한 소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고 약간 제 편견을 좀 깨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천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아까 천륜이라고 응답해야되는 거라고 늘 자라면서 배워왔기 때문에 쌓여 있었고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우리가 가지고 부모님들은 왜 이걸 해주지 않냐하는 아쉬움 또는 요구 당연한 요구라는 게 어찌다 보니 쌓였고 그것으로 인한 갈등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지 그거를 타파할 수 있다면 또는 생각을 조금 더 연다면 약간 이상하지 않겠는데? 이렇게 해도 세상은 많이 달라지지 않는데 오히려 더 좋아지는데?하는 다른 관점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정 : 이 책에서는 원래 뭔가 부양을 해야 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뭔가 꼭 부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3대가 같이 살아서 저는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항상 간섭을 받아왔어서 마음으로는 모시고 뭔가 지원을 해 드리고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언젠가는 우린 쪼개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아까 그 천륜을 좀 끊어내더라도 연대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었는데 이게 원래 당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우\*정 : 저는 근데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은 원래 많이 대부분의 가정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사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8. 정년 연령을 늘리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박\*형 : 제가 생각하기에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 1~2위를 다투는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를 가진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양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년이 늘어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는 그들이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들은 이렇게 가족을 꾸리고 여태까지 삶을 이렇게 연장을 해왔으니 이제 최소한 우리한테 이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퇴직 후에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 : 저는 정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운전 면허도 몇 세 이상이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은 좀 주류가 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저도 좀 개인이 알아서 사회 구성원을 위해 반납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도 회사가 원하는 그런 생산성 있는 일을 하려면 나이 든 사람들도 당연히 좀 젊은 사람들을 원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년 제도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좀 나이가 정년에 가까워진 혹은 정년을 넘은 그런 직원들은 소외되는 부서에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문제점이 또 발생할 텐데 그러면 애초부터 뿌리를 잘라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정년 퇴직한다면 지금처럼 시청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해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우 :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65세가 정년 퇴직이라 해서 65세 딱 이후로 일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다녔던 회사에서 나와서 자신이 해보지 않았던 다른 직군의 일로 이동을 하는거죠. 실제로 정년 퇴직 연령보다 훨씬 일찌감치 퇴직을 하시거나 퇴직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든 일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거든요. 일의 강도는 조금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 그냥 의지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사람은 계속해서 부족해지니까요.

김\*정 : 근데 이러려면 사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이 안 받쳐주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노인분들 일자리가 많이 없고, 잘 안 뽑으려고 하니까 의지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사회적인 시스템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우 : 우리나라가 선진화 됨에 따라 이제 산업의 양상이 바뀌잖아요. 원래는 가내 수공업 등 노동력이 중요한 산업 위주였다가 이제 점점 공장으

로 가고, 기계 집약적인 산업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저숙련 노동의 일들은 기계나 로봇 등이 하니까 저희가 필요한 건 아이디어나 창의력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에 비해 유행을 따라다니는 속도도 느리고, 생각의 속도나 창의력 등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할수록 노인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건 당연해지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의 능력이 쇠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숙련 노동자가 필요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구요.

권\*재 : 미국은 정말 유연한 채용 제도가 있어요. 원하면 자르고 원하면 채용하는 제도가 있죠. 나이가 80이어도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곳에서도 인력난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또 정년 제도가 없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박\*형 : 사실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한 게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1500만 명에서 2천만 명정도 되면은 이제 주 생산 연령층보다 많아지잖아요. 사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생각하려면 이걸 엄청난 생산력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재고용 해가지고 어떻게 재교육을 시켜서 빨리 어떻게든 산업 시장이라든지 어디서 재투입할 수 있고 그걸 어느 정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가 빨리 생기지 않는다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돼요.

**9. 우리 사회에 있는 뿌리 깊은 요즘 사회 갈등 문제 중 세대 갈등이 가장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혹은 좀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게 있나요?**

권\*재 : 옛날에 이어령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나이듦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젊은이들은 늙고 늙으면 죽는다" 라는 간단한 말로 우리 생애를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젊음에 안주하지 말고 나중에 당신들이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그 노인들을 대우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 다 좋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문제는 키오스크 못 쓴다고 뒤에서 난리를 치거나 막 바쁘다고 눈치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정 : 노인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에도 나오듯이 할머니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그런 문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노인들도 개성이나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윤\*우 : 제가 생각한 부분도 비슷합니다. 이 책에도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노인의 행동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존재 자체에 대해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비하하는 말 있잖아요. 틀니 딱딱이라고 많이들 핀잔을 줍니다. 이러한 부분은 노인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아닌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에서 비롯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끄럽게 우는 저 갓난 아이는 나의 과거였고 답답할 만큼 느리게 걷는 저 노인은 나의 미래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남이라고 신경을 안 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박\*형 :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여는 게 어쨌든 도움을 요청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말고 도움을 주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 그거야말로 궁극적인 세대 갈등의 치유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소 : 추가적으로 저는 편견을 타파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상 당연히 보살펴야 된다는 등의 당위성이 느껴지는 표현이 조금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한 표현들을 조금만 자제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잘 표현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만 행복하다면 그렇지요. 근데 그런 것에서 약간 이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고 기존의 틀을 깨고 또 당위적인 표현을 자제했을 때에도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재 : 양성평등이라는 표현 말고 요즘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 두 성이 아닌 다른 성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의미라는 것처럼 원점에서 출발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어떤 그런 가정의 형태가 있듯이 그것들을 다 존중을 하면서 이럴 수 있구나 저럴 수 있구나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행복하다면 계속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좀 될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우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가 더 교류되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나 SNL에서 옛날 과거의 회사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즐겁게 보잖아요. 우리 같은 젊은 세대도 즐겨보구요. 그런 것처럼 과거의 어떤 문화나 감성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교류해보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매체를 통해 드라마나 영화를 보여주는 것도 한 가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진을 보여주고 그 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얘기를 해보고, 공통점을 찾으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 : 앞에 분들과 비슷한데 키오스크나 그런 전자기기 등 새로 나타난 다시 말해 그들 시대에 없었던 새로운 거는 당연히 그들한테는 너무 익숙하지 않고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도와줘야합니다. 또한 우리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개인의 인식부터 바뀌는 부분이 우선시 해야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걸 좀 장기적으로 두고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단기간에 안 바뀌었네 바뀌었네 이 정책이 실패했네 마네 이렇게 왈가왈부 하지 말고 그런 인식의 변화는 어느 순간 딱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너그럽게 기다려주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참가자대표 : 권\*재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탕평책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 장 소 : 한림대학교 음악감상실							
<b>참석자 명단</b>	학번	2021****	이름	권*재	학번	2023****	이름	우*정
	학번	2022****	이름	김*영	학번	2023****	이름	박*형
	학번	2022****	이름	이*소	학번	2023****	이름	김*정
	학번	2023****	이름	윤*우				
<b>참석인원</b>	7명							
<b>선정도서</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장 보통의 차별 - 전혼일</li> <li>2. 그랜드스탠딩 - 저스틴 토시, 브랜던 워키</li> <li>3.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 김태형</li> <li>4. 시대예보 - 송길영</li> </ol>							
<b>토의 내용</b> (읽은 책을 중심으로)	<p><b>5회차 토의 내용</b> : 책 ‘가장 보통의 차별’을 읽고 우리 북클럽 부원들은 “세대갈등”을 이번 주 토의 주제로 선정했다. 부원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한 세대갈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갈등의 원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갈등의 해결책을 향한 의견제시까지를 목표로 한다.</p> <p><b>1.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세대갈등,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 - 자녀’ 간의 갈등이 있을까?</b></p> <p>박*형: 이제는 성공의 방정식이 바뀌었다. 과거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 때는 고성장 시대였다 보니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이 보장되었다. 하지만 IMF와 여러 경제 위기 이후 성공의 방정식이 바뀐 것 같다. 또,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 다름에도 일률적인 공 부를 강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p> <p>윤*우: 책의 내용 중 “부모님은 간접적인 화법으로 불편함을 표현한다.”는 부분이 가장 공감이 되었다. 또한, “죄책감을 덜고 싶은 자식과 그 죄책감에 기대서라도 자 식과 끈끈하게 이어지고 싶은 부모의 모습”이라는 부분이 공감되었다. 개인적으로도 조금은 이런 것을 겪어본 것 같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점점 벽이 생길 것 같다.</p> <p>박*형, 권*재는 윤*우의 의견에 공감했으며, 각자 진로 선택에 대해 부모</p>							

님의 사소한 압박이 있었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소, 우\*정은 어릴적 진로 선택과 공부와 관련해 부모님의 개입이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특히 부모님의 개인적인 경험, 자녀의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가치관 등으로 지금껏 진로 선택을 하는데 큰 갈등이 없었다고 밝혔다.

## 2.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대갈등, 왜 일어날까?

김\*영: 각 세대가 향유하는 문화가 다른데, 서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인 것 같다.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향유하는 문화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서로 다른 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어른들이 기계에 대해 어려워할 수 있지만, 키오스크,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는 등의 모습에서 “이런 걸 왜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박\*형: 이런 갈등은 정치권에서 부추기는 것 같다. 아울러 유튜브 알고리즘 등으로 확증편향이 심해지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윤\*우: (키오스크 때문에 화난 어른에 잘 대처한 아르바이트생 영상을 보여주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잘 대처를 해서 좋게 마무리 된 사례지만 이걸 보면서 참 대화가 부족하구나 느낀다. 조금만 알려주고 조금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지 같이 알아봤다면, 어른도 화낼 일이 없고 아르바이트생도 굳이 욕을 들을 이유가 없었다. 이것을 보며 책에 나와있는 ‘5분 존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우리사 회에서 갈등을 해소하는데 공론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꼈다.

권\*재: 어른들과 우리 세대가 경제적 이윤을 두고 경쟁하는 사회이다. 그런데 인구 구조를 보면 윗 세대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 그렇다보니 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작은 파이를 두고 어른들과 경쟁해야 하는 세태 때문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게 아닌 가 싶다. 미리 공적부조, 정년과 관련해 개혁이 일어났어야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다.

## 3. 정년제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윤\*우: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에 정년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분들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를 보장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정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김\*영: 운전면허도 일정 나이가 되면 반납하는 것을 장려하듯 개인이 알아

서 사회 를 위해 반납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정년을 없애고 그들의 해고가 어려워진다면, 회사에서도 그 분들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중에 소외될 수도 있지 않을까..

김\*정: 현행 정년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책에서 나와 있듯 유연한 정년제도 (일본의 도요타 사례)를 실시하는 것이 좋은 예시가 될 것 같다. 특히 퇴직 이후에 노동이 가능한 분들이 집에서 쉬는 거라면 국가적인 손해이지 않을까. 퇴직 이후 우울증에 걸리거나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니 정년 이후에도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정: 정년도 정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급한 문제는 노인이 되었을 때, 공공 부조가 뒷받침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하루 빨리 국민연금, 복지 제도가 개선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정년 이후에 일을 하는 게 선택의 문제가 되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일하는 것을 선택하는 건 다른 문제다.

#### 4.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갈등 중 가장 심각한 ‘세대갈등’ 어떻게 해소 할 수 있을까요?

권\*재: 과거 이어령 교수는 ‘젊은이는 늙고 늙으면 죽는다.’는 말을 했다. 단순한 이야기 속에 젊은 사람의 그 ‘젊음’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은 늙다가 죽는다는 진리를 명쾌하게 알려주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젊음에 안주하지 말고 나이들 앞에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태도로 노인을 대해야 하지 않을까. 어른분들도 과거를 생각해 우리들을 기다려 줄 수는 없을까.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덕성’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노인 빈곤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 모두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께 관심을 갖고 대할 필요가 있다. 어른분들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정: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가끔 ‘노인’이라는 단어로 모든 사람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책에 나와 있듯 ‘할머니도 아.아를 좋아한다.’ 그 분들도 각자의 개성과 취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그들을 ‘노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대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취향과 개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특성에 맞게 대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윤\*우: ‘어떤 행동에 대해 비판해야지 존재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된다.’라

는 말이 있다. 하지만 최근 노인을 대하는 혐오 표현은 그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비난이 많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 '시끄럽게 우는 저 갓난 아기는 나의 과거였고 답답할 만큼 느린 저 노인은 나의 미래다.'라는 생각을 갖고 상대에 대해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여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지 않을까. 아울러 백마디 말보다 하나의 영상 매체가 더 나은 것 같다.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가 많이 나온다면 서로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소: 편견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되는 '당연히', '당연하게'라는 수식어가 많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다. 각자 다른 형태로 살아가고 본인들이 행복하다면 된 것 아닐까. 꼭 가족 형태가 엄마, 아빠, 자 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것처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났다고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해 보인다.

김\*영: 장기적인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 한순간, 서로 기다려주지 못하고 화내는 모습을 보며, '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심화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지금도 어디선가 세대갈등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고 천천히 나아질테니 시간을 갖고 인식이 변화하기를 기다려 보는 것은 어떨까.

2024년 5월 13일

참가자대표 : 권\*재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탕평책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 장 소 : 한림대학교 음악감상실							
<b>참석자 명단</b>	학번	2021****	이름	권*재	학번	2023****	이름	우*정
	학번	2022****	이름	김*영	학번	2023****	이름	박*형
	학번	2022****	이름	이*소	학번	2023****	이름	김*정
	학번	2023****	이름	윤*우				
<b>참석인원</b>	7명							
<b>선정도서</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장 보통의 차별 - 전훈익</li> <li>2. 그랜드스탠딩 - 저스틴 토시, 브랜던 워키</li> <li>3.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 김태형</li> <li>4. 시대예보 - 송길영</li> </ol>							
<b>토의 내용</b> (읽은 책을 중심으로)	<p><b>6회차 토의 내용:</b> 이번주 주제는 “지역갈등”이다. 우리나라의 지역갈등, 예를 들어 전라도 지역차별과 같은 주제를 책을 읽으며 처음 경험한 부원들이 많았다. 우리 북클럽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지역간의 편견과 혐오에 대해 집중했고 우리나라 외에 다른 국가에서는 이러한 지역차별과 같은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다가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비슷한 경우의 일이 발생한다는 걸 알게되었다. 일본의 ‘부라쿠민’ 문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교해 보았고 그 문제에 대해 분석 하고자 했다. 이 분석의 목적은 한 사회가 과거 역사부터 생긴 문제에 대한 의식이 지금까지 이어졌음을 부각하고 싶었다.</p> <p><b>Q1. 왜 부라쿠민 차별이 발생하는가?</b> 박*형: 일본은 상명하복의 문화가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성씨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한다. 특히 상류층의 가문간 교류도 타 국가 대비 활발한 편이고 그들 간의 약혼이나 청탁 같은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다.</p> <p>권*재: 동의한다 또한 일본은 입헌군주제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고 계급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국가 이기 때문에 옛날의 천민이었던 부라쿠민들이 아직까지도 차별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일본 정도면 상당한 수준의 선진국인데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p>							

윤\*우: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도 한 몫 하는 것 같다. 즉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본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또 문제가 있어도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일본 사회 특성상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다.

박\*형, 권\*재, 윤\*우는 서로의 의견에 동감했으며 다른 참가자들도 서로의 의견을 덧붙이며 의견을 모았다. 김\*영, 이\*소는 이 문제가 비단 일본 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 인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았다.

## Q2. 한국의 계층 문제와 일본의 부라쿠민 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우\*정: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일본보다는 자본적인 계층문제가 큰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계급적인 계층문제는 없는 편인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계급제가 붕괴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계층간 차이가 있다는 것은 공통된 점이지만 그 안을 살펴보면 그 기원 다른 것 같다.

## Q3. 왜 해결되지 않을까?

김\*영: 부라쿠민들이 여론을 형성할 힘이 없는데 주요한 원인 인 것 같다. 아까 다른 분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일본 국민들이 이 문제를 거의 인지하지 못한 채 살고 있고 또 미디어는 대중들이 관심이 없는 정보는 다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보니 메인스트림으로 이 주제가 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

이\*소: 일본 국민들이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주요한 이유인 것 같다. 자민당 1당 독재 체제임에도 크게 반발의 목소리도 이의 제기도 할 생각이 없는 건지 그냥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공동체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사회에서 자신의 정치 신념을 드러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다.

## Q4.일본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나?

김\*정: 사실 일본 정부는 부라쿠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1969년에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부라쿠민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했다. 2002년에는 '동화사업'을 통해 부라쿠민 차별 해소를 목표로 한 정책이 종료되었다. 최근에는 '차별 철폐법'을 통해 부라쿠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Q5. 부라쿠민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권\*재: 교육과 인식 개선이 중요한 것 같다. 차별의 역사와 문제점을 교육 과정을 통해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닐까 싶다

윤\*우: 부라쿠민 커뮤니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라쿠민 커뮤니티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다.

우\*정: 법적 보호를 기초로 한 사회 안전망 확립이 필요할 것 같다. 차별 철폐를 위한 법적 보호와 실질적인 집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소: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 사안에 대한 인지도나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디어가 부라쿠민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고, 차별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방지해야 한다.

김\*영: 차별 반대 캠페인이나 관련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박\*형: 일본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차별 철폐를 위한 법적 제도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지하는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다.

김\*정: 부라쿠민 차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비단 부라쿠민 문제가 아니더라도 북클럽에서 다루는 다른 차별 문제도 마찬가지

2024년 5월 20일

참가자대표 : 권\*재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당평책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 장 소 : 한림대학교 음악감상실							
<b>참석자 명단</b>	학번	2021****	이름	권*재	학번	2023****	이름	우*정
	학번	2022****	이름	김*영	학번	2023****	이름	박*형
	학번	2022****	이름	이*소	학번	2023****	이름	김*정
	학번	2023****	이름	윤*우				
<b>참석인원</b>	7명							
<b>선정도서</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장 보통의 차별 - 전훈익</li> <li>2. 그랜드스탠딩 - 저스틴 토시, 브랜던 워키</li> <li>3.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 김태형</li> <li>4. 시대에보 - 송길영</li> </ol>							
<b>토의 내용</b>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윤*우</p> <p><b>1. 혐오나 갈등의 해결책</b></p> <p>“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사례 연구”의 논문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주장 이면의 관심사를 찾고, 이해관계 중심 대화를 통해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도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조정 기제의 가능성과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독립적인 갈등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는데 너무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다른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p> <p><b>2. 학자의 의견을 통한 해결책 도출? 학자 선택의 이유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에 대한 설명</b></p> <p>[ 책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에서 니체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니체라는 학자로 선택을 했고,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갈등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내 의견을 엮어 해결책을 도출해 보고자 했습니다.</p> <p>그전에 앞서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갈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니체와 쇼펜하우어가 갈등 및 혐오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학자가 느끼는 단점들을 보완해 해결책을 만들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두 학자의 의견 중 나와 견해가 비슷한 학자의 의견을</p>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

###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의견 피력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와 마흔에 읽는 니체를 읽으면 “현재에 대한 태도”에 대한 두 학자의 견해를 배울 수 있는데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서 죽은 뒤의 삶은 버리고 내가 현재 발붙이고 있는 이 땅 이 시점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한다. 쇼펜하우어 또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연속된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으로 과거와 미래는 실존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현재라는 것이다. >> 둘 다 현실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사뭇 다른데, 니체는 고통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고통을 받아들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지금의 고통을 더 큰 고통으로 극복하라고 하며 고통을 피하지 말고 맞서라고 한다. 따라서 니체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니체는 삶은 갈등으로 가득한 긴 투쟁이지만 갈등 덕분에 한 개인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에서 오는 고통은 개인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비례해서 따라오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낮추라고 말한다. 소확행의 그것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즐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간의 고통은 그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따라오는 것이므로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 기대치를 낮추라는 것이다. 따라서 쇼펜하우어의 견해를 정리하면 내면의 갈등을 길들이지 않고는 평안해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엮으면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화 시키자면 니체가 갈등론, 쇼펜하우어를 기능론으로 나누는 것이죠. 게임이론에서 기능론과 갈등론을 통합하는 이론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기존의 두 이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론 학자인 액셀로드스 이기주의적인 개인들이 왜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인 틱포텟(협력의 진화)이라 불리는 이론을 제시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의 이타심이나 이기심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이득을 얻기 위한 최적의 전략인 틱포텟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를 사회에 적용하면 사회는 게임 이론적인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생존 경기(게임)에서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려는 수많은 개인들은 자신의 생존 안전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협력을 선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기심이나 이타심, 지능의 높낮이, 성격의 좋고 나쁨과는 상관없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람들은 자신과 협력할만한 대상을 물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형성된 집단은 내부적으로, 혹은 외부적으로 각각의 역할(기능론적인 관점)을 배분한다. [이것을 꼬리표붙이기라고도 부른다.] 꼬리표 붙이기의 예시 : 군인이나 정치인, 상인, 생산직 등의 직업이 될수도 있고, 남성, 여

성 등의 성 역할이 될수도 있고, 노인, 중년, 청년, 학생, 영유아 등의 나이 일수도 있다. // 또한 이렇게 형성된 역할들은 점차 고착화된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고정관념, 역사, 관습, 문화, 법률, 제도가 탄생한다. 각 개인들은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률과 제도에 따라 행동하며, 이 제도를 벗어나는 대상을 제재하려 한다. 일탈적인 행동은 기존 제도의 효율을 깨트리기 때문이다. (갈등론적인 관점) 이에 따라서 범죄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등 전체의 생존 도모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 혐오해결방안\_혐오표현규제중심으로\_우\*정

### ① 동기

- 처음 북클럽을 꾸렸을 당시, 서로 다른 전공을 통해 각자의 인사이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번 활동을 통해 그 점을 드러내보면 좋을 것 같아 배운 전공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고민해보았음.

혐오 해결방안을 고민하며 가져야 할 태도로는 소로가 남긴 말을 인용.이 시대의 문제점은 **목적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수단의 개선만 끊임 없이 이루어진다는 데에 있다.

-> 우리가 혐오에 맞서야 하는 목적과 규제해야 하는 이유 등을 생각하지 않은 채, 혐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았기에 제도 정비도 미비하다는 생각이 듦.

- 따라서, 책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혐오표현의 다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해외의 법제 중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음. 나라 선정 기준은 선진국 중 우리나라보다 법률 체계가 훨씬 세밀하고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인 세 곳을 가져왔음.

### ② 우리나라의 혐오표현 규제 현황

국내 현행법 중에 혐오나 혐오표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는 없다. 혐오표현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사람마다 이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할 수 있다.

↳ 이를 알 수 있는 조항 몇 개를 살펴보자.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혐오표현을 형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인 법원이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성문법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혐오표현에 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도 아직 없다.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의 성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간주하기 때문.

(ex 인터넷 공간의 특징상 공연성은 당연히 성립하지만,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기에 지금까지 혐오표현이 명예훼손죄의 틀 안에서 다스려지지 않은 것.)

③ 해외의 혐오표현 규제 현황 (독일, 영국, 캐나다)

#### 독일

독일은 형법 제 130조 제 1항에 &대중선동죄&를 규정하고, 구술 또는 간행물을 통해 치안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거나 그들에 대한 폭력적 또는 독단적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 &특정 인구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여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는 등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법률 체계를 가진 독일도 &혐오표현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은 입법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혐오표현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연구자들에게 지적을 받음.

+ 일반법으로 일반평등대우법과 군인의 평등대우에 관한 법률 등 차별금지법을 두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관련 법안은 민간인과 군인을 대상으로 인종, 민족적 출신, 성별, 종교·세계관,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정체성을 사유로 하는 차별을 예방하고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단 일반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이후 형법 개정을 통해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규정을 추가·보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 독일은 SNS상 혐오 표현과 관련해 &네트워크집행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 형법에 위배되는 표현물만을 적용 대상으로 해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입법내용은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 영국

영국은 1986년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질서법에 따라 반인종주의를 주장하는 표현도 처벌대상이 된다.

영국은「공공질서법」에서 &인종적 적대감을 고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거나 & 혹은 &모든 상황상 인종적 적대감이 유발될 것 같은 경우&로서 위협적, 매도적, 모욕적인 말, 행동, 글을 공개하는 경우, 및 종교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위협적인 말 또는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글을 공개하는 것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혐오표현을 한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양자를 병과하거나, 약식기소된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또한 「평등법(2010)」에서는 연령, 장애, 성전환, 인종, 종교 또는 신앙, 성별, 성적지향의 속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그 사람에게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멸시적이거나 굴욕적이거나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거나 효과가 있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혐오표현에 포함될 수 있는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2013 명예훼손법」을 통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혐오표현에 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 영국의 공공질서법은 **선동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SNS상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범죄 및 질서위반법에 따라 &피해자의 장애, 인종, 종교, 성적지향,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한 범죄자의 적의를 동기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음.

### 캐나다

「캐나다 인권법」은 영국의 「평등법」과 더불어 보통혐오표현이라 불리는 행위를 차별행위의 일종으로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차별의 정당화 또는 고착화가 혐오표현의 가장 큰 폐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일반적인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대감이나 편견 등을 조성·조장하거나 선동하는 것을 혐오표현의 개념요소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에 단순히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정도를 넘어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 등을 일으킬 의사를 가지고 행해질 것을 요구함으로써 혐오표현의 개념범위를 제한하고 이로써 제재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함임.

### 혐오해결방안\_뉴딜에서 영감 \_박상형

혐오와 갈등은 현대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고는 혐오와 갈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서 영감을 얻어 이를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뉴딜 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시행된 일련의 경제 및 사회 정책으로,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세대 갈등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다.

### 혐오와 갈등의 원인

혐오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분열, 심리적 요인이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자원과 기회의 불공평한 분배로 인해 특정 집단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 혐오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사회적 분열은 문화적, 인종적, 정치적 차이로 인해 집단 간의 상호 이해 부족과 편견을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은 개인의 불안, 스트레스, 외로움 등의 감정이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 전환되면서 혐오와 갈등을 증가시킨다.

### 한국 사회의 혐오와 세대 갈등 문제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세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혐오는 주로 외국인, 성소수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나타나며,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커뮤니티 중심으로 혐오의 대상이

갈리게 된다. 세대 갈등은 경제적 불안정, 취업난, 주거 문제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불만과 오해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사회 전체의 안정을 저해한다.

#### 뉴딜 정책의 주요 요소

뉴딜 정책은 경제 회복 프로그램, 사회 보장 제도, 일자리 창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었다. 경제 회복 프로그램은 공공사업과 금융 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빈곤층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교육 프로그램은 청년과 실업자에게 직업 훈련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했다.

#### 혐오와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

뉴딜 정책의 요소들을 현대 사회의 혐오와 갈등 해결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 평등 촉진을 위해 공공사업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책이 진행되려면 중앙정부나 지역 자치단체의 행정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사회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혐오를 줄이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에서는 다문화 가정 지원, 성소수자 인권 보호,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 비난이 시대 정신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꼭 필수교육과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심리적 지원 및 교육을 통해 개인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혐오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한 혐오 감정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에서는 학교와 직장에서의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도 진행되어야 한다.

#### 결론

본 논문은 뉴딜 정책에서 영감을 얻어 혐오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평등 촉진, 사회 통합 강화, 심리적 지원 및 교육을 통해 현대 사회의 혐오와 갈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세대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뉴딜 정책의 요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여건을 현대적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혐오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란다.

#### 권\*재

미셸 푸코와 하버마스의 생각 엮이기: 과학적 진리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교묘한 폭력인 가, 소통의 가능성을 내포한 미완의 프로젝트인가?

우리 사회에서 혐오는 메인 이슈가 되었다. 개인들 간의 개성과 특성은 다른 이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XX층'과 같은 혐오 표현은 양산되며 사용 된다. 누군가는 이 점을 두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생활 양식이 미분화 되어 감에 따라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이 있다. 한편, 우리 사회가 점점 다른 이들을 존중하지 못하는 '여유 없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면 갈등은 존재하지 않을까? 흑과 백의 대립처럼, 보수와 진보, 여성과 남성, 젊은 층과 노인층, 부자와 빈자, 성소수자 등 두 집단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각자의 논리와 분노가 공고해짐에 따라, 이제는 대화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 같다. 더 나아가 두 집단 간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추가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인구 절감이 급속해짐에 따라 국민연금과 같은 공공부조의 신뢰가 잃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금 수령층과 그렇지 못한 이들 간의 논쟁은 수십년째 반복 중이다. 분명,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는 요원하다. 이 밖에 군 가산점 문제, 동성애의 제도권 편입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제시되면, 수많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릴 뿐이다.

갈등과 혐오로 시작되는 문제는 크게 두가지라고 생각한다. 우선, 갈등으로 시작 된 혐오 범죄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혐오와 갈등은 각자의 의견이 극화된 상황을 넘어, 실제 타인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을 저해한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간의 신뢰는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치안은 자랑할 만한데, 카페에서 귀중품을 두고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은 큰 사회적 자본이다. 이 밖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 경비 서비스, 보험 등에 과하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사회적 자본 축적의 순기능일 것이다. 하지만, 갈등과 혐오가 심화되면 개인간의 신뢰가 저해되며, 모든 선택에 내집단 혹은 자신만 고려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질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행위들이 많아진다면, 사회적 자본이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갈등과 혐오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미셸 푸코와 하버마스라는 두명의 현대철학자들의 시선을 빌려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혐오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우선 푸코의 이론은 무엇일까? "감시와 처벌", "성의 역사1"을 통해 알 수 있듯, 근대 사회에서 범죄자와 일탈적 성행위자들은 국가 권력의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과학의림으로 구축된 지식 - 담론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는 물리적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으며 국가의 능동적인 개입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통제 대상들이 내면의 윤리의 식에 의해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관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푸코에 의하면 우리는 외부 세계에 고착된 관념 (에피스테메)로부터 내면적

성찰을 하며, 권력에 알맞는 사람으로 자란다고 본다. 즉, 자기 내부의 성찰과 훈련이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 인식을 통해 비로소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인, 죄수, 이상 성욕자와 같은 존재들을 자신의 외부에 만들어놓고 그들을 인식함으로써 주체의 개념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은 특정한 사람이나 조직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권력은 사회 곳곳에 편재되어 있는 촘촘한 망과 같은 것이다. 또한, 권력을 통한 지배는 단순히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한 욕망, 도덕의식, 가치 체계, 담론 양식 등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푸코가 주장한 권력,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일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의 영혼을 갈고 닦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푸코는 이를 두고 "자기배려 윤리"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자기 배려는 생활의 기술로서 개인의 실존 전반에 걸쳐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타자에 대한 관심의 시선을 거두고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는 기술이다. 우리는 스스로 윤리적 주체가 되도록 자기 배려를 실천한다면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한편 하버마스는 민주주의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담론 윤리를 제시한다. 사회는 다양한 조건과 기능의 재생산을 통해 유지된다. 행정, 경제, 교육, 의료, 종교, 법률, 문화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조건과 기능이 존재한다. 하지만 하버마스를 따르자면 사회적 영역들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세계"이다. 체계는 본질적으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두 기능, 행정과 경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세계는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화, 통합, 문화 전승을 담당한다. 대표적으로 교육, 문화 종교적 기능들을 들 수 있다. 체계는 무엇보다 효율적으로 사회를 관리하고 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에는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이와 달리 생활세계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를 내면화하고 자발적인 소속의식을 지니는 과정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진행될수록 경제 영역에 국가 개입이 증대되면서 전통적 부르주아 사회가 조성해낸 사적영역과 체계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경제와 사생활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을 위해 관료제가 도입되었고 이들의 목적은 효율성과 합리성이다. 따라서 기존에 부르주아 공론장이 담당한 사적 영역(문화, 경제 등)도 효율성, 목적 합리성의 논리에 지배되었다. 특히 과거 문예적 공론장인 살롱, 커피하우스 독서 클럽 등에서 교환된 문화는 이제 대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거대 상품들로 만들어지고 감각적 소비 대상으로 전락했다. 한편, 언론이 당대의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진지한 토론이라는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이윤 획득만을 추구하는 거대 산업체로 변질되었다. 이에 더이상 공론장 형성과 유지가 힘들어졌다.

마지막으로 부르주아 공론장의 해체 위기는 문화와 언론의 대중화 및 상업



화에 의해서만 촉진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치적 공론장의 주요한 두 기관인 정당과 의회 가 본래적 성격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당은 명사들 사이의 친밀한 정치적 대화와 토론의 장소가 아니라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대 규모의 관료제적 조직으로 변화했다. 의 회 또한 실질적 정치 토론의 무대가 아니라 거대 정당과 사회 단체들의 이익 실현을 위 한 형식적 장소로 전락해버렸다.

하지만 법과 같은 체계는 실증적 차원에서 투명한 절차를 밟았다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이끌어낸 합의를 반영할 때만 그 정당성이 실현된다고 본다. 하버마스는 체계로부터 생활세계로 침투해 오는 여러 형태의 위협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활세계 내부의 의사소통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즉 하버마스의 정치적 희망은 생활세계 내 합리적 의사소통의 활성화 에 자리하고 있다.

하버마스와 푸코의 이론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갈등과 혐오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 우선 푸코가 말하는 권력을 통한 지배는 단순히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한 욕망, 도덕의식, 가치 체계, 담론 양식 등에 침 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현대 사회에서 정부의 가장 큰 권력 기능 중 하나는 "억제 설정"기능이다. 이들은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특정 주제에 집중해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킨다. 이 과정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해 갈등을 일으 키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개개인의 자기 배려 윤리이다. 권력이 만들어낸 외부 세계에 고착된 관념 (에피스테메)로부터 내면적 성찰을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묘하게 자행되는 권력의 억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 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로써 권력과 억압의 수단인 억제설 정 기능을 미분화 된 개인들이 수행함으로써 권력의 억압 기능을 해소해야 한다.

한편, 개개인들에 의해 던져진 의제를 하버마스가 강조하는 생활세계 내 합리적 의사소통으로 건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 모든 의사 참여자가 동등한 공론장에서 특정 의 제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인 터넷과 가상 현실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론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정 문제에 대해 갈등과 혐오로 얼룩진 모습에 서 건전하고 건설적인 토론으로 해결되는 사회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한다.

김\*영

#### 혐오표현과 대응실태 -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

혐오표현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포함한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 표현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빠르게 확산되는 중이며, 이러한 문제는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종류의 혐오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로 인한 영향, 그리고 이를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인권단체인 '아티클19'는 2015년 '혐오표현 대응 툴킷'을 펴냈다. 툴킷은 혐오를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보호되어야 할 특성을 실제로 가지거나 혹은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격앙되고 불합리한 비난, 적의, 증오의 감정이라고 말한다. 또한 '혐오'는 단순한 편견과는 다르며, 반드시 차별적이어야 하고 '혐오'는 어떤 감정상태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로 표출되는 행위와는 구별 된다고 한다. 표현은 내면적인 어떤 견해나 생각을 외부의 청자에게 전달하는 견해나 생각을 전하는 모든 표현을 뜻한다. 이 두 가지 기본 요소에 기초하여 '혐오표현'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유엔은 2019년 6월 18일 혐오표현을 '종교, 민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과 같은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를 근거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경멸하거나 차별하는 언어를 사용해 말, 글, 행동으로 공격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으로 정의했다.

최근 들어 혐오표현이 가장 문제시 되고 다양한 혐오표현이 나타나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에서 혐오표현은 여성 혐오, 성소수자 혐오, 외국인/이주자 혐오, 장애인 혐오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 혐오는 커뮤니티 게시판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강력하게 작용되고 있었다. 성소수자 혐오는 통상 제도권 안이라고 여겨지는 이성애중심주의에 기반하여 있었다. 외국인/이주자 혐오에는 한국인이 서구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에 분노하여 적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었다. 장애인 혐오는 장애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표출되기보다는 여성, 특정 지역이나 정치적 이념 등을 비하하는 수단으로 도구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혐오표현이 만연하게 사용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있다. 혐오표현의 사용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심화된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집단 간, 개인 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킨다. 또한 혐오표현의 사용은 차별과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폭력과 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혐오표현은 혐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사회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견되는 여러 혐오표현으로 인해 자유롭고 공정한 토론이 위축된다. 혐오표현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민주적 사회의 중요한 요소인 대화에 벽을 세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위에서 살펴본 혐오표현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 혐오표현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엄격한 처벌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다. 또한, 혐오표현을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교육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연성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미디어와 언론에서는 혐오표현을 조장, 확산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혐오표현의 사용을 방지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혐오표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정 <생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혐오와 그에 따른 해결책>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며 살아간다. 개인의 감정과 의견은 자신을 드러내고 소통하는 요소로서, 타인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가지는 감정이나 의견은 모두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표현되기에는 올바르지 않다. 그렇기에 현대 사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혐오'에 대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혐오'의 한 가운데에 있다. 혐오표현은 언제나 어디서든 발견하기 쉬운 정도로 일상화 되었고 점점 극단적인 혐오표현 또한 많아지고 있다. 도서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에서 이러한 극단주의의 발생 이유를 크게 실재적 위협과 정신적 위협, 이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실재적 위협의 양상으로 정치적 위협, 경제적 권력 위협, 신체적 안녕 위협이 속하고 정신적 위협은 고립과 고독, 삶의 의미 상실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생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혐오의 원인과 양상, 극단적인 혐오의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심리학자인 존 가르시아의 혐오 학습 실험에서 혐오는 학습을 통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르시아는 쥐들에게 일반 과일을 단맛이 나는 물을 제공하여 골라서 먹게 하였다. 쥐들은 단맛이 나는 물을 좋아했고 그것을 선택하였다. 이후 단맛이 나는 물을 마실 때마다 구역을 짙게 염색하는 감마 방사선에 노출시켰다. 그 결과 쥐들을 회피하는 반응을 나타냈고, 방사선 수준이 높을수록 혐오 반응이 심했다. 혐오가 학습된다는 이론에서 주목할 점은 혐오가 학습의 형태로 다음 세대에게 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식과 개념이 다수에게 관념화되면 혐오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문화적 특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강한 혐오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체적 차이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이 남성보다 약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신은 물론 자식에 대한 보호감이 남성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혐오는 전염병에서 야기한 예시로도 설명 가능하다. 심리학자 마크 살러는 외부의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무의식적 신체를 보호하려는 반응을 행동면역체계라는 진화의학적 개념으로 정의했다. 질병에 걸리면 면역은 몸은 동생리학적 에너지를 활발하게 소비한다. 몸에 열이 나면 효과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신체 에너지 소비량이 13%가량 증가하는데, 음식이 부족했던 선사시대의 맥락에서 보면 이런 에너지 소비 증가가 각자의 몸에 심각한 부담이었다. 따라서 과거엔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게 생존에 절대적으로 유리했고, 이런 이유로 인간 진화 역사의 99%를 설명할 수 있는 수렴-채집기에 걸린 본능이고 인류는 이 무의식적 심리 반응을 발전시켜왔다. 행동면역체계가 잠재적 병원체와의 접촉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한다. 혐오 반응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학습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질을 더 잘 기억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 덕에 병에 걸릴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생김 질병에 대한 혐오가 극단적으로 되면 그 질병을 가진 인간과 사회 전체에 대한 혐오로 확장될 수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가 커져 특정 질병이나 이질적 집단에 대한 정보를 단순화하고 의인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과의 경계와 질서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질병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통해 자신의 동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망이 작동한다.

수렴-채집기에 걸린 본능 중에 부족 본능도 혐오를 유발한다. 편을 갈라 타 집단을 차별하고 혐오하며 회피를 선택해 자신의 집단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것을 부족 본능이라 한다. 본능적으로 네편, 내편이 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작용하면 내 편이 하는 이야기엔 과도하게 동의하고 그 외는 적으로 내몰며 내집단이라는 우물 속에 갇힐 수 있다. 내집

단을 향한 과한 공감의 외집단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혐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진화학자인 창대의 교수는 도서 "공감의 반경"에서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것이 답이라고 말한다. 정서적 공감은 우리 편에게만 공감하는 부족 본능을 자극하기에 환경적으로 인지적인 방식으로의 공감을 유도해야 한다. 공감은 외부 환경의 자극 없이 무조건 발현되는 것이 아니다. 환경에 따라 인지적 공감을 통한 공감의 반경은 확장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과정에서 인지적 공감을 알려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집단이 싸우는 복수의 감정만이 아닌 갈등의 해결책을 고민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또한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수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안이 된다. 실제로 가상 현실 기술 회사의 CEO인 크리스 밀크는 VR을 '궁극의 공감 기계'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라인은 알고리즘 등의 시스템으로 선택적 만남을 하므로 고정관념 속에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오프라인 공간을 많이 이용하며 낯선, 그래서 두렵던 것에 대한 접촉의 경험을 늘리면 편견을 깨는 기회가 많이 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설을 이해하려면 그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보아야 한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쌓이다 보면 공감의 반경을 넓히게 되어 혐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2024 년 5월 27일

참가자대표 : 권\*재